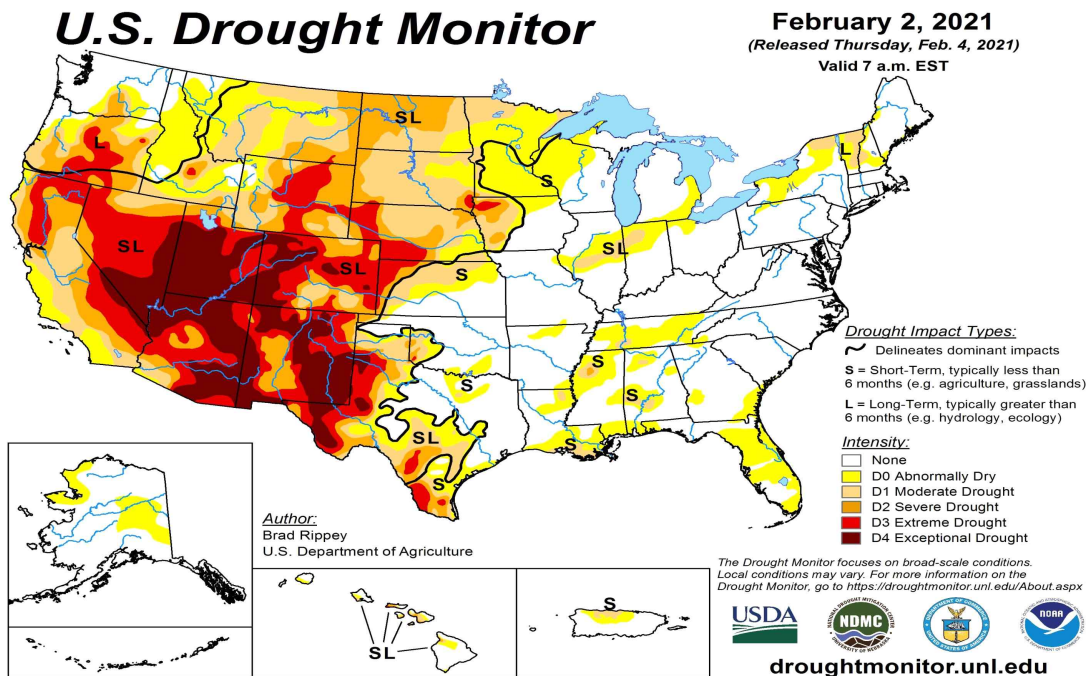


2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8, No. 6)

□ 미국 기후 현황(1/31~2/6)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북동부 일부에 서서히 움직이는 해안 폭풍이 많은 비를 내려주어 며칠 동안 (바람 부는 날씨와 눈보라의) 영향이 계속되었다. 비록 상당량의 강수가 북서부에만 국한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폭풍우성 날씨의 중심이 잠시 미국 서부로 되돌아갔다. 2월 4일에 겨울 날씨가 중서부 위쪽으로 옮겨갔고, 그곳은 눈바람과 돌풍이 불어서 이동에 지장을 주었고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동일한 날씨가 남부 전역에 대체로 가벼운 비를 내렸다. 주말에 북부 및 중앙 평원에서부터 동부까지 강수가 드문드문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및 중앙 평원에 있는 몇몇 겨울 밀 밭은 추운 날씨가 왔는데도 보호성 눈 덮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몬타나 북동부에서 미네소타 북부까지 지난 주는 기온이  $-20^{\circ}\text{F}$  이하로 떨어졌다. 아주 넓은 지역에서 영하의 수치가 발생했는데 남쪽으로 확장되어 2월 6일에는 캔사스 북동부와 미주리 북부까지 뻗어나갔다. 일찍이 발생했던 추위가 남동쪽까지 깊숙이 도달하면서 플로리다의 포트 피어스 ( $29^{\circ}\text{F}$ ), 베로 비치 ( $30^{\circ}\text{F}$ ), 및 델버른 ( $31^{\circ}\text{F}$ ) 같은 여러 곳에서는 2018년 1월 18일 이후로 처음으로 결빙이 발생했다. 플로리다의 몇몇 생산자들이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감귤류, 딸기류, 사탕수수 및 채소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한 작물들은 그 경미한 결빙을 피했다. 남동부의 여러 곳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circ}\text{F}$  이상 낮았으나 고원 중부 및 남부와 내륙 북서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들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10^{\circ}\text{F}$  이상 높았다. 다른 곳들은, 남캘리포니아에서 남부 평원까지는 2월 초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 □ 농업 현황 요약 ( )

: 내용없음

## □ 세계 기후 현황(1/31~2/6)

■ 유럽: 지난 7일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대륙 대부분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일련의 대서양 폭풍이 계속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대서양 연안에서 동유럽의 많은 곳까지 광범위한 비 (서부와 남부)와 눈 (북동부)을 발생시켰다. 유럽 남부와 남동부 일부에서 좀 더 건조한 상태 (5 mm 이하)가 나타났지만,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재배 지역들에서 총 강수량 (액체 등량)이 10~65 mm 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있는 반휴면 내지 영양기 겨울 곡류에게, 대륙의 나머지 지역에 있는 휴면 겨울 작물들은 물론이고, 습기 공급은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발칸반도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7° C 높아서 서부의 경작지는 눈 덮임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반면, 독일 동부에서 발트해 국가들까지는 추운 조건 (평년 대비 최대 3° C 이하)이 계속되었고 얇은 눈 덮임 (2~10 cm)이 남아 있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에 광범위하게 내린 비 (25~100 mm)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들을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을 유지해주어서 작물 전망을 양호 또는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후반에 있었던,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 (평년 대비 2~3° C 이하)가 작물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더 먼 북쪽,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비교적 건조한 날씨 포켓이 지역에 추가 관개 필요성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맑고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여름 작물의 발달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했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 지역에서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여름 작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습기를 유지해주었다. 북동부의 넓은 지역 (포모사에서 남쪽으로 산타페와 엔트레 리오스까지)과 부에노 아이레스 북동부 부근에서 총 50 mm 이상의 강우가 보고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부에서 북쪽으로 살타 전체로까지 다소 약한 비 (10~25 mm, 국지적으로 50 mm까지)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 유익한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른 철 건조에 영향을 받은 곳들에서 옥수수과 대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한 날씨 (평균 기온은 2~4° C,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낮은 30도대 (섭씨)로 제한됨)도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이 생식기로 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 농경지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가 계속되어 이곳은 2차 작물 대두를 위해서 수분이 필요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더 이른 시기에 심은 북부 농경지대를 중심으로 해바라기는 19% 수확되었다 (작년의 29% 대비). 게다가, 북동부 (엔트레 리오스, 코리엔테스 및 산타페 북부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성숙하기 시작하여 곧 있으면 수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 산발적인 소나기가 브라질 대부분에서, 특히 핵심 생산 지역의 동쪽 가장자리에 서 여름 농작물에게 혜택을 주었다. 마란하오 남부에서 남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전역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비 (10~50 mm)가,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탕수수과 커피 같은 특수 작물은 물론이고 미성숙 옥수수와 대두에게 적시에 수분을 공급했다. 비가 더 많이 오는 날씨도, 낮 최고 기온이 종종 섭씨 30도대 중반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기온을 계절에 더 맞는 수준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 서쪽으로는 마토 그로소에서 소나기가 차츰 줄어들어서 주의 대부분에 기록된 소나기는 25 mm 미만이었다.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의 발아를 위해서는 추가 수분이 환영받았겠지만 좀 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현장의 작업 속도는 더 빨라진 것 같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2월 5일 현재 대두는 11% 수확되어 작년보다 33 포인트 지체되었다; 결과적으로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8% 및 60% 파종되어 둘다 작년보다 훨씬 뒤쳐졌다. 한편, 브라질 남부 전역에 유익한 소나기 (10~50 mm)가 산발적으로 내려서 건조 포켓이 몇 개가 있었지만 다양한 발달기 중에 있던 여름 작물들에게 적시에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2월 4일 현재 대두는 69%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파종한 옥수수 작물은 37%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2월 1일 현재 첫 번째로 심은 대두와 옥수수의 각각 90% 및 82%가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